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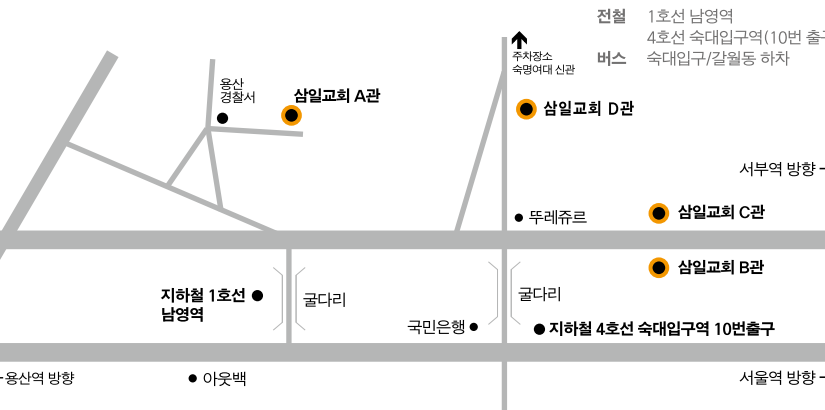
집회안내

집회	시간	장소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삼일교회 8관 2층	영아부예배 (1~3세)	1부: 오전 10:30	4층 영아부실
	2부: 오전 10:30	(영어통역 3층)		2부: 오후 1:30	
	3부: 오전 12:00	(중국어통역 3층)	유아부예배 (4,5세)	오전 10:20	7층 유아부실
	4부: 오후 1:30		오후 1:20		
	5부: 오후 3:00	(5부 일본어통역 3층)	유치부예배 (6,7세)	오전 10:10	7층 중예배실
젊은이예배	6부: 오후 4:30	삼일교회8관 2층	유년부예배	오전 10:10	4층 유년부예배
	7부: 오후 6:00	(영어통역 3층)		초등부예배	오전 10:1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45		소년부예배	오전 10:10	C관 5층
수요일예배	1부: 오후 5:00		중등부예배	오전 11:00	C관 4층
	2부: 오후 7:30	삼일교회 8관 2층		고등부예배	오전 11:00
금요철야기도회	오후 11:00		새가족부	주일 낮 예배직후	C관 1층 새가족부실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리더교육	토 오후 5:00	삼일교회 8관
	2부: 오전 6:30				

1 / 2 월 예 배 봉사위원	기도 순서			봉헌위원	
	1부	2부	3부	1부	박동선 집사
1월4주	전세봉 집사	장구경 집사	남재희 집사	2부	김희석 집사
2월1주	이대규 장로	나원주 장로	이광영 장로	3부	장구경 집사
	2주 전세봉 집사	장구경 집사	남재희 집사	4부	정석면 집사
	3주 박신찬 장로	이대규 장로	나원주 장로	5부	이수관 집사
	4주 김경준 집사	주병옥 집사	임두호 집사	저녁예배	주병옥 집사

교회안내

B관	베다니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4 (청파동1가 삼일교회 교육관)	Tel 02.713.2660	Fax 02.3273.5297
A관	아브라함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호로 89길 18-19	Tel 02.711.4328	
C관	새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5	Tel 02.703.4001	Fax 02.711.3126
D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삼일기도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336-10	Tel 031.592.8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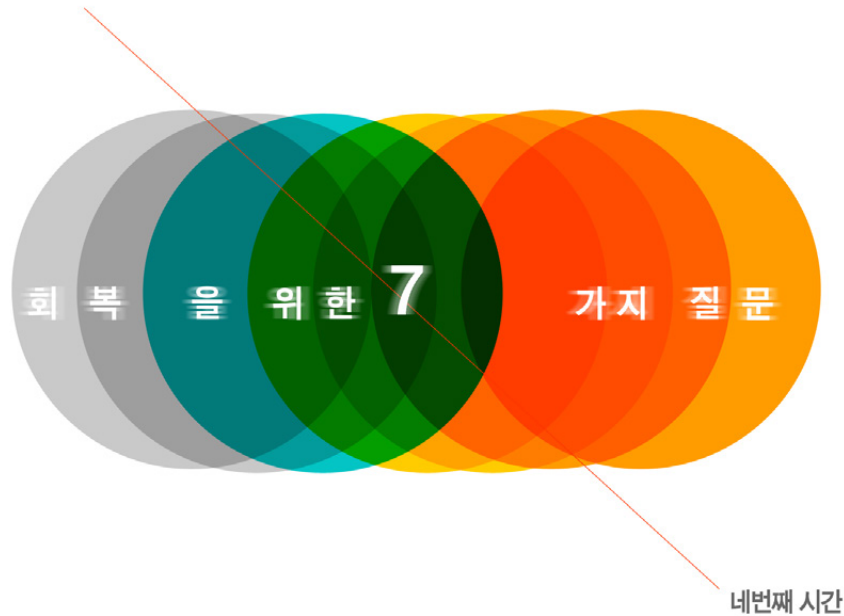


섬기는 분들

담당목사	송태근			장로	이광영	이대규	박신찬	나원주
행정		강종욱목사	010-2546-7494	지휘자/	A 그룹	윤원준/ 장성개		
새가족부		염영선전도사	010-9213-0506	반주자	B 그룹	이진아/ 김상원		
					C 그룹	이근영/ 이다정		
					D 그룹	박운진/ 이연나		
주일학교	교육위원장	우상현목사	010-2405-4525		E 그룹	권경란/ 하민경		
영아부		박소금전도사	010-8431-3379		땅굴	박사론/ 장홍주		
유아부		곽연미전도사	010-4529-0426		하늘	최대승/ 홍예리		
유치부		유한미전도사	010-9282-9784		저녁	장구경/ 박신영		
유년부		최강현전도사	010-9443-0753		수요 1	김현철/ 나은진		
초등부		서범준목사	010-4016-6428		수요 2	정광민/ 김혜민		
소년부		이성균전도사	010-3101-1673					
중등부		이규현전도사	010-2771-1464					
고등부		박수영전도사	010-2656-4584	직원	행정실장	황세원	010-4233-0688	
학원선교부		이요셉전도사	010-6738-1404		전 산	박선순	010-6273-0072	
					사무행정	송요해	010-2001-4458	
					사무행정	위 철	010-3437-7939	
대학청년부	1진	김현욱강도사	010-9441-8401		사무행정	전덕산	010-3861-4521	
	2진	이홍우강도사	010-9659-3591		일반사무	김진경	010-3056-5901	
	3진	김현민목사	010-8311-8133		일반사무	이선주	010-6449-2241	
	4진	이용희전도사	010-6417-4448				(FAX : 3273-5297)	
	5진	이익주목사	010-8769-0191		방송영상	정명현	010-9072-3745	
	6진	전영민목사	010-4855-5838		음 향	조홍규	010-3776-4175	
	7진	이운준목사	010-2396-5253		록 양 실	김정선	070-4264-9302	
	8진	김정호전도사	010-8264-0219				(FAX : 070-8884-3125)	
	9진	양재현목사	010-5473-0698		A관 관리	남재희	010-2449-3593	
	10진	김성태목사	010-2241-1950		C관 관리	이상일	016-9444-2996	
	11진	현해욱목사	010-9078-1425		D관 관리	진병이	010-3955-9138	
	12진	조시환전도사	010-5555-4031		기 도 율	이대규	010-8869-1702	
	13진	김정안목사	010-2702-8039		식당관리	이정희	010-4109-1489	
	14진	고석창목사	010-2834-7697		경 비	유점원	070-4264-9350	
	15진	최성근목사	010-3444-8833					
	16진	이지혜전도사	010-5061-2880					
	17진	문승진목사	010-9428-9645	기계실	전 기	장준호	010-8640-9514	
	18진	전종국목사	010-2392-8061		설 비	남상준	010-4931-3593	
	19진	이은희전도사	010-8940-0241		설 비	이승진	010-7770-2196	
	20진	김수훈전도사	010-4570-2556		설 비	전진주	010-9769-0014	
							(FAX : 070-8848-3125)	
신촌진	1진	강병희목사	010-9903-7198	선교사	전병두	일본	81-90-8116-9372	
	2진	이희석목사	010-9166-5991		박미진	대만	001-886-912203824	
장년진	1진	박두진목사	010-7310-3103	기관선교	학원복음화합회의	한국선교동원기네트웍		
	2진	임형진목사	010-9184-3156					
	3진	안영민목사	010-3243-3559					
	4진	남수호목사	010-4190-0459	국내선교	이광현(영산교회)	이우근(제주토산교회)		
해외선교부		신용길목사	010-5113-9936	해외선교	신홍식(태국)	정운진(인·방·파) 오**(대만) 이영숙(일본) 월리엄김(동아시아) 이동현(미얀마) 임선희(나미비아) 남점길(브국)		
P.O.P		권충한강도사	010-3036-1540					

삼일커뮤니케이션팀 : 김현민 목사, 윤보람, 정성균, 김은혜, 신민아, 박인미

저수지 교회 2013. 1. 27
삼일교회 제60권 제4호



주일 1-5부 예배

설교 송대근목사 (사회: 1~3부 강병희목사 / 4 ~5부 이익주목사)
본문 렘 1:11
제목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4) “네가 무엇을 보느냐?”
현신기도 1부 전세봉 집사 2부 장구경 집사 3부 남재희 집사

주일 젊은이예배

주일 저녁예배

설교 송태근목사(사회 : 최성근목사)
본문 수 23:1-3
제목 여호수아강해(26) “마지막 부탁”

수요예배

설교 송태근목사(사회: 박두진목사)
본문 고전 2:1-16
제목 “성령과 지혜”

금요철야예배

설교 안영민목사(1부)/ 이성군전도사(2부)

새벽기도회

설교 월: 남수호 목사 화: 이상현 목사 수: 전종국 목사
목: 김성태 목사 금: 문승진 목사

Samil Church

저수지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답임목사 송태근

금주의 칼럼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 3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출4:2)

오늘의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관계로, 그는 원 고향땅 가나안에서 태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왕성한 번식력 위협을 느껴 히브리 남아를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출생부터 기구하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신다.

하나님의 질문과 부르심을 이해하려면 모세의 일생을 간략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남아살해 명령을 피해 갈대 바구니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바로의 딸에 의하여 건전을 받아 궁전에서 양자로 됩니다. 히브리 노예 출신의 자녀로서 모세는 40년 두사인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의 모든 문무를 다 배울 정도로 탁월한 인물로 자라게 됩니다. (행7:22) 그러나 그는 신앙 때문에 민족의식을 끊지 못하고 자기 동족이 애굽관리에게 매질을 당하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관리를 살해하고 도망법에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내몰려 다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허름한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여 목동으로 지냅니다.

양떼를 지키며 지푸라기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출3:1-9)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떨기나무는 미디안 광야에서 흔하게 자라는 잡목인데,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흔한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역사의 풀무 속에 던져져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그들의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비록 잠시 잠깐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공동체적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모세 개인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불이 붙기 위해서는 재료, 불,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료가 불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무가 불붙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사용할 것이나 모세의 조건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Q: 불타는 떨기나무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과 현재 초라한 모세이지만 구원의 역사에 사용될 것을 이중적으로 말해줍니다. 모세의 지난 행적을 짚어보며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뛰어 넘은 하나님을 발견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대답합니다. (출3:11) 모세의 이 대답 속에는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을 부르지 않고, 40년 빈들에서 홀로 초라하게 배반 자신의 처지 가운데 부름받음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 다. 40년 동안 애굽의 문명을 배웠지만, 또 한 “40년이 차매” 인간적인 조건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배우게 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창7:30) 의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죽은 물질인 이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였고, 던지자 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뱀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독이 있는 코브라종을 가리킵니다. 당시 애굽에는 ‘부 두’라고 불리던 수호여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문명이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 십니다. 뱀의 머리는 이미 사했고, 이 싸움은 이미 실질적으로 승패가 난 싸움임을 의미합니다. (창3:15) 모세에게 세상의 비굴과 가차에 근거한 명분이나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하여 결정 된 구원의 역사에 동참만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심하는 모세에게 문둥병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4:6-7)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자 죄성을 상징하는 나병 이 발병합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자 원래의 살로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이것은 나병처럼 죽은 이스라엘이 역사의 고난과 풀음 속에서 건짐을 받고 회복되는 영적인 완전치 승리를 모세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세 번째 기적을 보여줍니다. (4:9) 피는 죽음과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Q: 애굽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에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노인이 되어버려 인간적으로 막대기와 같이 아무 조건 없는 모세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의하여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 모세의 본심처럼 광야에서 함께 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습니다. (4:20) 이 지팡이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아말렉을 물리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는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나오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생에서 세상의 계급장, 잘난 요소들이 철저히 부수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합니다.(고후4:7)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으면 그 그릇은 소리도 없이 깨져 나가야 보배가 드러납니다. 성도의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께서 나를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근거로 어떤 조건도 남아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건지시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도의 보배로움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한 가지씩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드렸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도 고백해 봅시다.

▶ 찬양: 악할 때 강합되시네

기도 : 1월28~2월2일/대만선교, 1월24일~29일/오키나와1차, 1월25일~30일/오키나와2차

